

4/3 분기 소폭적인 가격하락 기대

우리 축산업계는 올들어 2차에 걸쳐 사료가격이 30% 가량 인상되어 양축가의 부담도 그만큼 가중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여러가지 불가피한 요인 때문이지만 양축가는 사료가격의 재인상되지 않아야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양축가는 보다 합리적인 경영으로 압박을 줄여야 할 것 같다. 급년 3/4분기와 4/4분기에 두차례에 걸쳐 소폭적인 가격인하 조정이 가능하리라 기대되며 급년 하반기 양계경기도 회복되리라 기대되어 양계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금년도 3~4월에는 배합사료거래면에서 특이한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 배합사료의 원가가 분명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퇴되고 또한 수입옥수수대전 결제의 긴급성과 배합사료 수요감퇴에 따른 시장확보 등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료판매경쟁이 노골화하여 수학적으로 풀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 방매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는 그러한 경제 원리에 기준을 둔다하여도 무엇인가 개운치 않는 느낌이 가지지 않는다. 즉 적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통상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같은 방매현상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사료품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둘째, 정상경영을 하고있는 중소기업이 대자본의 횡포에 도산을 갖어오게 된다는 것이며 셋째 양축가가 사료구입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현상은 곧 정상으로 회복되리라 기대되었으나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거래질서의 확립과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인 것이지 특정 메이커들이 양축가 보호가 전제가 아니라 거래선 확보를 목적으로 혼란을 갖어 오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

서 사료수급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세를 전망하고자 한다.

1. 사료곡물의 생산추세

1974년도의 사료곡물의 생산량을 보면 1973년도에 비하여 세계의 옥수수생산량은 11%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75/76년도 세계의 곡물생산예상량은 1974/75년도에 비하여 8,800만톤이 증가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1974/75년도의 곡물시세가 세계적으로 폭등하여 증산의욕을 자극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상조건의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식량이나 사료곡물은 증산되리라 본다. 미국의 1971~1975년도의 주요곡종별 작부면적을 소개하면 <표1>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1975 작부추정면적은 전년대비 옥수수가 4%감, 수수 6.3%증, 밀 2.9%증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0.6%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를 1971년도 작부면적과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7.7%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곡종별로 대비하여 보면 옥수수 0.8%증, 수수 9.2%, 귀리 17.1%, 보리 8.4%가 각각 감소현상을 나타내는 반면 밀이 36.1%, 쌀이 40.3%

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는 다른 곡종에 비하여 세계적으로 볼때 밀과 쌀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가격이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농민으로 하여금 증산의욕을 불러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곡종들의 작부면적비율을 보면 1971~75년도의 5년간에 있어서 옥수수가 39.2%로서 작부면적이 가장 넓고 그다음이 밀의 33.5%, 귀리 10.4%, 수수 10.1%, 보리 그리고 쌀의 순서로 나타나 있으나 단위당 생산능력으로 보나 재배면적으로 보나 옥수수가 미국에서

제일가는 작물이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 이외의 주요사료곡물수출국가들의 작황을 소개드리면 남아연방은 대풍작으로서 옥수수 생산예상량이 850~900만톤으로 추산되며 국내수요로 550만톤을 공급하면 300만톤이상의 수출여력을 충분히 가지게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항만시설을 감안한다면 최대 수출가능량은 월간 30만톤 년간 360만톤이기 때문에 수출여력으로 보나 항만시설로 보아 수출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 1>

미국의 주요 곡종별 식부면적 대비비

단위 : 1천정보

	1971	1972	1973	1974	1975※	1975/1971	1971-75 평균(%)
옥수수	30,226 100.0	27,335 △9.6	29,351 7.4	31,733 8.1	30,469 △4.0	0.8	39.2
수수	8,471 100	7,059 △16.7	7,849 11.2	7,237 △7.8	7,695 6.3	△9.2	10.1
귀리	8,961 100	8,235 △8.1	7,815 △5.1	7,387 △5.5	7,424 0.5	△17.1	10.4
보리	4,536 100	4,342 △4.3	4,583 5.6	3,721 △18.8	4,156 11.7	△8.4	5.6
밀	21,963 100	22,406 2.0	24,072 7.4	29,048 20.7	29,884 2.9	36.1	33.5
쌀	745 100	744 △0.1	890 19.6	1,056 18.7	1,045 1.0	40.3	1.2
합계	74,902 (100)	70,121 (△6.4)	74,560 (6.3)	80,182 (7.5)	80,673 (0.6)	7.7	100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생산예상량이 950~960만톤 수수생산량이 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나라는 지난해 옥수수 990만톤, 수수 560만톤정도를 생산하여 크게 재미를 본나라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330만톤을 계약하여 약 280만톤을 수출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이밖에 호주는 지난해 수수를 120~130만톤을 생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파종시기의 한발때문에 2월이상이 감소되리라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남반구의 작황이 풍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으나 그곳에 풍작이 오면 곧 그것이 세계적인 수급을 완화시켜 전체적인 곡물시세에 파급되어 그로 인하여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료곡물을 구매할 때 가격이 안정되어 유리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간접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소개드린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는 바이다.

2. 배합사료 원료시세

가. 옥수수 및 대두박의 국제시세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옥수수 및 대두박의 선물거래시세를 기준으로한 한국도착가격을 산출하여 보면 <표2>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1975. 3. 17~4. 17까지의 시세는 5월선적의 경우 옥수수는 톤당 최하 \$140에서 최고 \$148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어 가격차가 불과 톤당 \$8로 매우 안정성있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7월 선적분도 5월분과 마

참가자로 \$141~149의 범위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9월선적분은 최하 \$138에서 최고 \$146로 톤당 \$4이 하락되고 있는 반면 신품이 출회되는 12월에는 \$132~140선에 선물시세가 형성되고 있어 톤당 \$175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에 비한다면 톤당 \$45이나 저렴하게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하여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년 3월선적분이 톤당 \$131~142 그리고 5월선적분이 \$136~143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밖에 단백질사료의 주원료인 대두박시세를 소개드리면 5월선적분이 톤당 \$206~215 그리고 7월선적분이 \$209~219, 8월 선적분이 \$210~222, 9월선적분이 \$215~225, 10월선적분이 \$215~227 12월선적분이 \$218~228, 75.1월선적분이 \$220~229, 3월 선적분이 \$224~232로 형성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대두박은 우리가 직접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두를 수입해다가 일단 국내에서 착유하고 여기서 생산된 대두박을 사료로 사용하게 되나 이와같은 국제적 시세가 곧 국산대두박시세의 직접수준여부를 판단하여 주는 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소개드리는 것인바 우리는 언제나 국제사료 가격이 곧 국내 배합사료가격을 좌우하게 되며 또한 이제까지 배합사료가격을 인상할 때 마다 그 원인이 곧 수입가격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또 는 오늘날 원자재 파동과 세계적 인플레이로 말미암은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서도 원료의 합리적 구매는 절대적인 요건인 동시에 축산업의 전도와 안정적 뒷받침을 위하여서도 강조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모든 관계인의 공통된 관심과 지혜를 원료구매와 시장정보에 경주하여야 한다고 본다.

〈표2〉

옥수수 및 대두박의 선물시세 (한국도착기준)

단위 : \$/톤

품명 선적월 일별	옥 수 수						대 두 박							
	5	7	9	12	3	5	5	7	8	9	10	12	75 1	3
3/17	143	143	139	133	135		208	214	217	219	220	223	225	228
18	141	141	138	132	134		209	209	210	211	215	218	220	224
20	142	142	139	133	131		206	211	214	216	217	219	224	224
25	145	146	142	136	138		210	216	218	220	221	224	225	229
26	148	149	146	138	142		215	219	222	225	227	228	229	232
31	147	149	146	140	142		209	215	217	220	223	225	226	229
4/2	148	148	144	139	140	142	205	209	212	216	218	222	224	227
3	146	147	143	—	139	141	205	209	213	215	218	222	225	227
4	147	148	144	13	140	142	206	211	214	217	218	225	227	229
5	147	147	144	138	139	141	207	213	218	219	220	225	229	232
8	146	147	144	139	140	142	208	215	217	220	221	225	228	232
9	146	147	145	140	142	143	210	215	218	220	222	227	22	232
10	142	143	141	135	137	140	209	214	216	220	221	224	227	229
11	142	143	140	135	137	139	210	215	217	221	222	226	228	231
15	140	141	138	133	135	136	211	216	220	221	222	225	228	231
16	140	141	138	133	135	136	210	214	217	219	221	222	226	229
17	143	144	140	134	137	138	210	215	218	221	221	224	226	230

나. 국내 주요 단미사료시세

75.4.15현재 서울지방의 주요단미사료 시세를 보면 〈표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전년

동기간 대비 도입옥수수는 46.9% 국산옥수수는 23.3%가 각각 양등하였으나 대두박을 제외한 임박 호박 채종박등은 7~10%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중 강피류시세는 탈지강

이 21.8% 맥강이 21.6%가 각각 하락하였고 어분도 전년과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분상품 가격이 7.2%가 전년동기간에 비하여 양등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고려원양(주)이 원양어업에서 생산한 어분구매가격을 나타낸 것인바 고려원양산 어분은 조단백질이 국산 어분상품에 비하여 7%정도 더 함유되어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전년대비 2~3%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15 현재 시세를 전월 15일과 대비하여 보면 곡류사료, 대두박, 소맥피 및 어분시세는 보합세를 이루

고 있는 반면 임박, 호마박은 각기 7.4%가 하락하였고 채종박은 4.2%, 탈지강이 10.4%, 맥강이 7%가 각각 하락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일부 부원료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수요감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으나 4/14일자 정부의 혼합곡 및 소맥 분가계의 대폭적인 인상조치의 영향으로 현재 곡물시세가 10~20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소맥분 수요변동으로 인한 강피류사정의 변화가 있으리라 전망된다.

<표 3>

주요단미사료 시세표

단위 : 원/kg

구 분	서울지방도매시세			대 비 (%)	
	74. 4. 15	75. 3. 15	75. 4. 15	74. 4. 15/75. 4. 15	75. 4. 15/75. 3. 15
옥수수 (도입)	65.70	96.53	96.53	146.9	100.0
옥수수 (국산)	73	95	90	123.3	100.0
대두박	126.70	127.70	127.70	100.8	100.0
임박	95	95	88	92.6	92.6
호마박	97	95	88	90.7	92.6
채종박	81.80	77	74.50	91.1	96.8
옥수수배아박	63.80	60	60	94.1	100
맥강	51	43	40	78.4	93.0
탈지강	55	48	43	78.2	89.6
소맥피	21	21	21	100.0	100.0
어분(상)	140	150	150	107.2	100.0
어분(중)	121.30	120	120	98.9	100.0

3. 배합사료 생산실적

1975년도 1~2월까지의 배합사료생산량을 보면 <표4>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양계용의 경우 1.7%가 증가하였으나 양돈의 경우 9.8%가 감소하였고 유우는 42.4%, 유우 130.8% 기타 농축사료등이 32.2%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1~2월과 대비하여 보면 배합사료총생산량은 8.1%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1~2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미루어 볼 때 양계용 배합사료는 전년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유우 옥우 등은 증가추세를 그리고 양돈용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월과 4월에는 배합사료 판매경쟁때문에 일부 메이커는 극히 판매가 부진한 반면 일부 메이커는 판매량

에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5월부터는 가수요 구매확보분의 소진 선의의 판매경쟁등으로 배합사료 생산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가격전망

현재 미국에서는 옥수수 파종이 개시되었다. 위에서도 지적한바 있거니와 옥수수 작부면적은 전년대비 4%가 감소예상되고 있으나 지난해의 옥수수홍작은 강우로 인한 파종시기의 지연과 생육시기의 한발등이 그 원인이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평년작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 결과 홍작을 나타냈으나 앞으로 순조로운 파종과 기상조건만 계속 양호하게 전개된다면 얼마든지 증산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국의 재고량은 넉넉지는 못한 형편이나 미국의 주요가축인 소의 사육수가 일부 보도

<표 4>

배합사료 생산실적(1~2월)

구 분	양 계 용				양 돈			
	육 추 성	계 육 계	소 계	증 가 율	생 산 량	증 가 율		
1 월	1970	4,484	19,342	3,078	26,904	100.0(33.5)	1,030	100.0
	71	5,263	26,522	4,124	35,909	133.5(43.0)	620	60.2
	72	7,843	36,569	6,917	51,329	190.8(11.0)	2,276	221.0
	73	8,197	40,024	8,608	56,829	211.2(△27.0)	4,700	456.3
	74	7,167	30,612	3,702	41,481	154.2(△9.0)	12,463	121.0
75	6,934	26,268	4,515	37,717	140.2	12,217	1,186.1	
2 월	1970	3,883	18,656	3,117	25,716	100.0(60.8)	792	100.0
	71	5,709	30,539	5,110	41,358	160.8(13.9)	727	91.8
	72	7,435	33,736	5,918	47,089	183.1(△0.9)	2,998	378.5
	73	8,071	32,788	6,646	47,505	184.7(△17.2)	4,744	602.5
	74	6,075	30,113	3,144	39,332	153.0(13.1)	14,539	1,835.7
75	7,261	31,424	5,811	44,496	173.0	12,131	1,531.7	
1~2 계	1970	8,367	37,998	6,255	52,620	100.0(46.8)	1,822	100.0
	71	10,972	57,061	9,234	77,267	146.8(27.4)	1,347	73.9
	72	15,278	70,305	12,835	98,418	187.0(6.0)	5,274	289.5
	73	16,268	72,812	15,254	104,334	198.3(△22.5)	9,444	518.3
	74	13,242	60,725	6,846	80,813	153.6(1.7)	27,002	1,482.0 (△9.8)
75	14,195	57,692	10,326	82,213	156.2	24,354	1,336.7	

() 내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에 의하면 지난 10/1 현재 전년동기에 비하여 현재 76%, 75 1/1 현재 74%, 2/1 현재 63%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또한 집단사육장 (휘드랏) 에서 사육되는 소가 초지사육으로 상당수 전환되었기 때문에 초지 사육하는 소가 휘드랏으로 돌아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수요는 금년도 3/4반기이후에 가서 회복된다고 볼 때 그다지 걱정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상의 문제점은 있겠으나 8월말 또는 9월초순까지 사용할 옥수수수를 확보하여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옥수수수파종과 생육시기의 기상조건 그리고 매월 1일 현재 작황을 미국농무성이 매월 11일경에 발표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형성되는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구매한다면 유리한 구매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상태하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곡물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것은 매우 점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곡물가격

추세에 자신이 없다면 필요한 물량은 2~3개월씩 앞당겨 구매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정도 자신이 선다면 일시에 다량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시세를 본다면 9월초부터 사용할 옥수수수는 톤당 \$140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곡이 출회되면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130대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보겠다. 또한 국내 강피류시세는 유통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정부관리양곡 부산물인 탈지강맥강등과 민수도입 소맥가공 부산물인 소맥피가격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가격인상여하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이와같은 가능성은 지난 연말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나 정부의 재정부담이나 적정가격을 감안할 때 부득히 금년 3/4 분기중에는 가격인상이 있지 않을 까하는 전망이고 보면 국제옥수수 가격하락에 역행되는 결과를 갖어 올 공산도 없지 않다. 따라서 배합사료가격은 앞으로 일부 쌀 옥수수를 구매하여 현재 구매한 옥수수와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므로써 6월말경

(단위 : 톤)

유 우		비 옥 우		기 타		계	
생 산 량	증 가 율	생 산 량	증 가 율	생 산 량	증 가 율	생 산 량	증 가 율
1,336	100.0	86	100	2,454	100	31,810	100
1,594	119.3	389	452.3	1,074	43.8	39,586	124.5
3,859	288.9	640	744.2	1,498	61.1	55,566	174.7
5,712	427.6	168	195.4	921	37.5	68,330	214.8
9,022	675.3	1,177	136.9	516	21.0	64,659	203.3
13,241	991.1	3,416	3,972.1	1,029	41.9	67,620	212.6
815	100.0	275	100	1,585	100	29,183	100
2,373	291.2	963	350.2	1,370	86.4	46,791	160.3
3,748	459.9	33	84.7	1,498	94.5	55,566	190.4
4,793	588.1	224	81.5	1,059	66.8	58,325	199.9
8,701	1,067.6	1,786	649.5	796	50.2	65,154	223.3
11,987	1,470.8	3,423	1,244.7	705	44.5	72,748	249.3
2,151	100	361	100	4,039	100	60,993	100
3,967	184.4	1,352	374.5	2,444	60.5	86,377	141.6
7,607	353.7	873	241.8	2,172	53.8	114,344	187.5
10,505	488.4	392	108.6	1,980	49.0	126,655	207.7
17,723	824.0 (42.4)	2,963	820.8 (130.8)	1,312	32.5 (32.2)	129,813	212.8 (8.1)
25,228	1,172.9	6,839	1,894.5	1,734	42.9	140,368	230.1

에 1차로 배합사료 가격을 떨어뜨리고 신곡을 도입할 때 다시 실지 가격대로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시키는 안이 있겠고 또 하나는 현재 구매할 옥수수 수를 전량사용하고 난 다음 추가 구매하게 되는 옥수수의 실지 수입가격을 적용하여 9월초에 가격을 조정하고 신곡이 출회되면 다시 조정하는 안이 있으며 셋째로는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경우에 대비하여 배합사료가격을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키고 배합사료 가격과 옥수수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사료가격 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수입사료가격이 앙등되면 차액을 보전하여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키는 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배합사료시세를 보면 산란계사료가격이 1974. 10. 15 현재 톤당 \$168 이었으나 11/15 일에 \$167, 12/15일에 \$164 75. 1/15일에 \$160 그리고 2/15 현재 \$151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74. 10월과 75. 1월에 두차례에 걸쳐 배합사료의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4월에 10%수준의 가격인하가 실현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는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30%수준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였으며 앞으로 시기적으로 확실히 결정짓기는 어려우나 3/4분기와 4/4분기에 두차례에 걸쳐 소폭적인 가격의 인하조정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축산물의 소비도 증가되리라 기대되었으나 지나치게 가축을 증식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지난 2월에는 양계용사료 생산량이 1월의 37,717톤에서 44,496톤으로 18%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가격인상에 따른 가수요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라면 모르겠으나 양계산물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증식에 의한 배합사료생산량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양축가 여러분은 언제나 적정수수의 사육에 의한 축산물가격의 안정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삶의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양축경영을 하여 주었으면 한다. ■